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7.19.(제3763)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363-1452 ·Fax.393-8148
·목사관.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전체의 한 부분이니

만일 한 조각의 흠뎡이가

바다에 쏠려 내려가면

유럽은 작아진다.

모래톱이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지가

그러해도 마찬가지.

누군가 죽으면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나 역시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를 알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좋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나니.

- 존 던(John Donne)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8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례 송... 40장(1,3절) ...다 같 이 ※영 광 송..... 1장 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례 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
게 하소서 (시 86:11)

※경 배 찬 송..... 9장 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며, 내 이웃의 아픔과 필
요를 외면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 60번(시편139편) ...다 같 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
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
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
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
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 도.....조영익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조은지 집사

구 약 | 레 위 기 19:18

신 약 | 누 가 복 음 10:25-37

찬 양...목 마른 사슴같이...찬 양 대

증 언.....권오진 목사

『당신은 나입니다』

이웃사랑 나눔 프로젝트 결과보고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월례회

다음 주: 목장별 목장모임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박지연 전도사

방 학 중예배당

7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태복수 이찬주	박재훈 김보라 권호진 허상원 전동순 소미숙
안내위원	김유임	
강단헌화	(구본수 송명희)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믿음의 한계를 지우라”

구약 이사야 40:26

신약 요한복음 11:17-27

설교 : 권오진 목사

‘조망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주 비행사들이 대기권을 벗어나 저 아득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심리적으로 거대한 충격과 사고의 전환을 겪게 되는데, 이를 심리학과 행동과학에서는 ‘조망효과(Overview Effect)’라고 부릅니다.

지구 안에서는 빌딩 숲이 거대해 보이고, 국가 간의 국경이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일상의 갈등과 상처, 삶의 여러 문제들 역시 세상 전체를 삼킬 것처럼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주 비행사들이 이 땅을 떠나 지구 밖에서 지구를 조망하는 순간, 그 모든 거대해 보이던 것들이, 우주라는 거대한 흑암 속에 떠 있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 안의 모든 분쟁과 염려가 일순간에 작아보이면서,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조망효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땅바닥만 보며 절망과 패배감에 갇혀 있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차원 너머 우주의 전능자에게로 끌어올립니다. 본문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는 백성들의 눈을 들어 밤하늘의 ‘만상’을 보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만상’에 해당하는 히브

리어 ‘차바’는 군대를 뜻합니다. 무질서하게 흩어진 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정렬된 우주의 군대입니다.

현대 천문학은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스케일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가 넘는 은하가 존재하며,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숨 쉬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 많은 별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손바닥으로 채시는 하나님은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별들을 군대처럼 이끄시며,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스케일을 마주하면서, 미국의 천문학자 앨런 사이지(Allan Sandage) 박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체들의 이 완벽한 질서와 거대한 구조는 결코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 우주는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창조주의 거대하심을 비추는 가장 정밀한 거울이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주를 조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조망효과’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과 낙심을 멈추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깨시는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1장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의 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주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오라비가 곧 나으리라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을 더 지체하셨고, 그 시간동안 나사로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지나 시신이 썩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뒤늦게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하셨습니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이 어떤 한계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갖고 있던 믿음의 한계를 하나씩 깨뜨리시며 도전하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공간의 한계입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공간의 제한 속에 가두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침상 곁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육체로 존재하셨어야만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공간 개념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현대 이론물리학은 우리가 인지하는 4차원 시공간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차원들이 존재하며, 우주는 사실 11차원 혹은 12차원의 초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고차원의 세계만 해도 인간의 지각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하물며 그 12차원의 다차원 우주마저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왕상 8:27).”

하나님의 임재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예수님께는 ‘여기’와 ‘저기’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먼 거리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주님은 공간의 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마르다는 12차원의 우주도 담지 못할 광대하신 주님을, 베다니라는 작은 동네의 3차원 공간 안에 가두어 두는 제한된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둘째, 시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자,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번에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마르다에게 시간은 절대적인 법칙이었습니다. 한번 흘러가 버린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죽어서 나흘이 지나 세포가 썩어 냄새가 나는 시점에서는

그 어떤 반전도 일어날 수 없다는 시간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먼 미래의 종말의 때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 시간은 절대 불변의 흐름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중력과 속도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든기도 하는 유연한 피조물입니다. 고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흘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져 있는 축일 뿐입니다.

하물며 시간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 시간이 무슨 제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시 90:4). 마르다에게 ‘나흘(4일)’은 소생이 불가능한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시간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나흘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묶여 계시거나 미래만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는 영원하신 주님을 인간의 시간 법칙 속에 제한한 것입니다.

셋째, 지식의 한계입니다

다시 24절을 읽어봅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을 두고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나이다’의 헬라어 원어는 ‘오이다’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깊이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한다면, ‘오이다’는 배워서 머리로 인지하는 객관적인 정보, 이론, 교리적 지식을 뜻합니다. 마르다는 “예, 주님. 저도 부활 교리 정도는 배워서 상식적으로 ‘알고(오이다)’ 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요즘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가 다시 착륙시키고, 수천 개의 위성을 띄우고, 심지어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우주

를 이제 조금씩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놀이터를 이제 조금 탐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조금 발견하면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가진 작은 신학적 지식의 상자 안에 모든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덤 문을 여는 것은 제 상식과 지식에 맞지 않습니다”라며 주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오이다’의 지식을 깨부수시며 25절과 26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 어떤 먼 미래의 사건이나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12차원의 우주도 가둘 수 없고, 인간의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생명의 창조주가 지금 네 눈앞에 서 있으니, 네 지식의 틀을 지우고 나를 ‘믿느냐(피스튜오)’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피스튜오’는 이론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 한계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전 존재를 주님께 던져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적 조망효과로 믿음의 한계를 지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지극히 작은 4차원의 시공간과 내 상식의 감옥 속에 갇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이 찾아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사업, 병원에서조차 손쓸 수 없다는 건강의 적신호, 무너져버린 관계와 가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내면의 바리케이드를 칩니다.

“내 환경과 형편에서는 안 돼.”

“이미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 버렸으니 이제 나는 끝이야.”

“내 경험과 지식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상식적으로 이건 절대 불가능해.”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조망효과’입니다. 내 시선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

면, 그 문제는 온 우주보다 커 보이고 나를 짓눌러 숨 막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인간의 눈에는 ‘베다니의 닫힌 무덤’이 절망의 공간이지만, 우주를 한 손에 쥐신 하나님의 조망 속에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하늘의 보좌와 연결된 공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나홀이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 시점’이 끝이지만, 시간을 창조하시고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조망 속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 창문 너머로 지구를 보았을 때 그 안의 모든 분쟁과 염려가 한낱 먼지와 같이 보이는 것처럼, 12차원의 초공간을 다스리시고 수조 개의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조망(Overview)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마주한 ‘나사로의 무덤’은 더 이상 나를 절망시킬 수 없는 작은 점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일상을 조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적 조망효과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내 상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어놓은 모든 믿음의 한계를 지워버립시다. 내 경험의 한계와 내 시간의 절망을 지우십시다, 내 이성의 방어벽을 주님 앞에 무너뜨립시다. 우주의 만상을 이끌어 내시는 거대한하신 주님께는 못 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닫힌 지식의 고백 (“아나이다”)을 넘어 전 존재를 내맡기는 믿음(“믿나이다”)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막힌 돌문을 여시고, 죽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오라!” 명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조망함으로, 삶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 금

십 일 조 헌 금 (이한표 김순영) (최태성 김지애) (김선옥 구용연) (김성겸 이운진) 김은순 박선례 (박지현 전현순) (서정식 이인숙 화운)
이경희A (이동일 최은주) 이연순 (이정실 황문연) 조순임 최경애 추화순 황공자

월 정 헌 금 김소희 (김준식 김민식) (송성범 최명애) (염봉진 곽동경) 이명애 임연희 (장성욱 김아영) (정성규 심성희)

감 사 헌 금

(권오진 조고은) : 한주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장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박기순 :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범택 윤옥희) :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서태희 :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희 : 하나님 무더운 계절에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김예원 : 학업의 모든 순간 동행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귀한 열매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소서!

(김정문 유은종) : 김서후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김진숙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카시아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주심을 감사합니다.

송명희 :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산소를 순조롭게 개장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송성범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송주영 : 모든 식구들 건강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염봉진 곽동경) :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유윤자 : 故김영철 성도 23주기 추도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영호 : 늘 찬양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전차월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 명 :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현, 윤정, 장원, 소원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미래까지도 책임져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생 일 헌 금 김경행 (김정문 유은종) 윤영은

선 교 헌 금 오혜리 이한나 (이정실 황문연) 총여선교회(선교동역교회 태화샘솟는집)

맥 추 감 사 헌 금 박기순 (강용국 노복순) (강준호 김예지 강하람) (김진우 한은숙 김카시아) (김치년 홍주연) 이선주 이연순
(정성규 심성희) (정성훈 강연희 정진우)

특 별 헌 금 강단현화 (구본수 송명희)

창립70주년 고광섭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이웃사랑 나눔 프로젝트 결과보고 : 오늘 예배에 있습니다.
-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오늘과 26일(주일), 8월 1일(토)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25일(토)~26일(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 여름철 신앙교육활동을 위한 '손잇기 중보기도' : 로비층에 전시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부임 심방 : 최영섭 권사 서인숙 집사
- 2026년도 2학기 장학생 후보 신청접수 안내 :
1) 대상 : 아현중앙교회 교인 및 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신청 가능 대상자(교회 홈페이지-소식/교제-아현중앙소식)
2) 제출기간 : 8월 9일(주일) 오후 3시까지 도착 분
3) 신청 및 문의 : 교회 홈페이지, 오석만 목사

■ 모임안내

- 한나회 야유회 :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신촌형제갈비에서 있으며, 오후12시 20분에 교회버스가 출발합니다.
- 제7남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소예배당(지하1층)에서 있습니다.
- 여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각 지회별로 있습니다.
제1여선교회-402호(4층) / 제2여선교회-403호(4층)
제3여선교회-회의실1(로비층) / 제4여선교회-302호(3층)
제5여선교회-새가족실(3층) / 제6여선교회-301호(3층)
제7여선교회-회의실3(로비층) / 제8여선교회-도서실(로비층)
제9여선교회-401호(4층)
- 제5남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후 12시 40분, 회의실3에서 있습니다.
- 중고등부 학생 및 지역 청소년 대상 여름방학 특강(오리엔테이션) 여름방학 수능 언어 및 논술특강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오후 1시 소예배당에서 진행합니다(강사 : 박희 성도 / 대상 : 본교회 중고생 학부모, 학생, 지역 청소년(부모) 모두).
- 지역나눔 반찬봉사 : 25일(토) 오전 9시에 만나홀에서 있으며, 배달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 교우동정

- 감사 : 한나목장을 후원해 주신 이윤진 성도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한나회 야유회를 후원해 주신 장로회, 여선교회, 김춘강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출국 : 이동일 권사께서 25일(토) 업무차 캄보디아로 출국하십니다.

♣ 여름철 신앙교육활동

영 아 부	7.12(주일)/7.19(주일)/7.26(주일)/ 8.1(토)
유 치 부	7.18(토) - 7.19(주일)
유초등부	7.25(토) - 7.26(주일)
중고등부	7.31(금) - 8.2(주일) (국내선교)
청 년 부	8.21(금) - 8.23(주일) (국내선교)
여선교회	8.5(수)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7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25일(주일)

■ 금요성령집회(7월 24일)

찬 양	느헤미야 찬양단
설 교	권 오 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7월 26일)

대 표 기 도	집 례 자
성 경 봉 독	정 혜 미 집사

■ 주방봉사

- 이번 주 : 1초원
- 다음 주 : 2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서지수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